

『忠烈小五義』의 국내유입과 스토리 연구*

김명신·민관동**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말

朝鮮은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했고 문화면에서 상당히 풍요로웠다고 알려진다. 조선인들은 중국 서적에 관심이 매우 많아 역관 등은 중국 서적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는데,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문물 등을 접하고 견식을 쌓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중국 서적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 사신, 역관, 무역상, 서적 중개상 등의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 조선시대에 공적인 서적 유통은 頒賜¹⁾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冊僮(서적중개상)²⁾, 서점상, 세책업자 등이 주도했다.³⁾ 朝鮮後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A00128).

** 주저자: 金明信(慶熙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學術研究教授).

교신저자: 閔寬東(慶熙大學校 中文科 教授).

- 1) 頒賜는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서 서적을 활자, 또는 목판으로 간행한 다음에 왕명으로 승정원의 승지 또는 규장각의 각신이 특정 文臣이나 관원과 官署·史庫·향교·서원 등에 보급시켰던 유통방법이다.
- 2) 冊僮는 조선후기의 한자발음으로는 책회 또는 책피로 표기하지만 격음화나 격음화의 결과 채쾌나 채피로 발음하게 된다. 冊僮의 현실발음이란 결과가 무시되고 ‘僮’는 단독일 때도 쾌로 읽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44-45쪽 참조.

期로 갈수록 중국 서적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중국 서적을 소장하려는 장서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중국 서적의 국내유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서적들 중에 중국소설은 당시 독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 조선에서는 歷史小說과 愛情小說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고 필사되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忠烈小五義』와 같은 俠義公案小說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朝鮮에 유입되었고 朝鮮 독자들의 수요에 의해 번역되었던 것이다.⁵⁾

그러면 중국 독자와 朝鮮 독자들은 왜 이 작품을 선택하고 독서하게 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독자들의 기호가 이 작품의 스토리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반적인 논지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2. 『忠烈小五義』의 국내유입

『忠烈小五義』는 124회본으로 작자 미상⁶⁾이고 一名 『續忠烈俠義傳』 혹은 『小五義』이라고 하는 清代 俠義公案小說이라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작자에 대해서는 石玉崑과 王府의 說書人이라는 두 가지 설이 대두되고 있다. 작자가 석옥곤이라는 설은 기존의 학설로 譚正璧 등이 주장

3)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9. 160-165쪽 참조.

4) 당시 중국 서적의 장서는 주로 京華世族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18, 19세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로서 장서를 세련된 취미 생활로 생각했으며 생활문화로 발전시켰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제9호, 1996. 171-194쪽 참조.

5) 朝鮮 독자들은 궁중 여인, 士大夫의 부녀자, 妓女, 譯官, 몰락 양반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忠烈小五義』의 구체적인 독자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6) 이 작품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일부 소장본은 清代 石玉崑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하고 있다. 석옥곤은 『충렬소오의』 외에도 『忠烈俠義傳』, 『續小五義』도 창작했다고 알려지는 인물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그는 대략 1850年 경에 생존했다고 알려지지만 거주지와 생몰연도 모두 분명하지 않다.⁷⁾ 또한 그의 호는 問竹主人이고 北方의 유명한 설서 예인으로 특히, 『忠烈俠義傳』을 잘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작품의 작자가 王府의 說書人이라는 학설은 중국 학자 苗懷明이 주장했다. 그는 『충렬협의전』, 『충렬소오의』, 『속소오의』 세 작품을 결코 석옥곤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인하여 서적상이 동일인의 창작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 여겼다. 다만 그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붙어 있다. 원작은 石玉昆이 맞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文光樓 판본은 說書藝人이 창작한 것이고 서적상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세 작품을 세트로 구성했다⁸⁾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설서예인이 오랫동안 수정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고 보지만 이 작품의 원작자가 석옥곤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忠烈小五義』의 판본은 繁本과 簡本 두 종류가 있다. 번본은 光緒 16年 (1890년) 北京 文光樓 간행본으로 일찍이 魯迅이 언급했던 간행본이다. 머리에 光緒 庚寅 文光樓主人의 序文, 風迷道人的 小伍義辨과 知非子·慶森的 跋文이 있다. 간본은 文明書局의 標點本과 일반 石印本이 있다. 간본은 노신이 언급한 판본의 생략본인데, 현재 文光樓 간행본은 노신이 언급한 내용보다 많이 생략되어 있다. 이외에도 申報館 排印本, 光緒 16年 善成堂 간행본, 光緒 32年 丙午 上海書局의 石印本 등이 있다.⁹⁾

『忠烈小五義』는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朝鮮後期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이 작품은 文光樓 간행본이

7) 譚正璧, 전개논문, 1981. 7. 133쪽 참조.

8) 苗懷明, 「『三俠伍義』與『小五義』『續小五義』關係辨」, 『信陽師範學院學報』, 1999. 7. 102-105쪽 참조.

9) 譚正璧, 「論『小五義』」, 『明清小說』, 1981. 7. 136쪽,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 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1. 758-759쪽 참조.

10) 민관동,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流入과 受容에 대한 研究」, 『중국어문학』 제49

가장 이른 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국내유입은 아무리 빨라도 1890년 이후일 것이다.¹¹⁾ 현재 『忠烈小五義』의 한글 번역본은 2종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樂善齋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31권 31책본 필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16권 16책본 필사본으로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번역본의 제목은 『충렬소오의』라 되어 있고 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逐字譯과 意譯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작품 124회의 내용 전체를 거의 다 번역하였고 일부 중국어 단어는 音借하여 번역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²⁾

국내에는 6卷4冊으로 된 중국 판본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成均館大學校, 東亞大學校, 鮮文大 朴在淵 교수의 소장본이 있으며 한글 필사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아래 도표에서 드러나듯이 이 작품의 국내 소장 상황을 보면 서울, 강원, 충청, 부산 등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개인 소장자를 제외하더라도 이 작품의 전파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드러내고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³⁾ 현재 국내 소장된 원전과 번역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호, 2007. 6. 345-374쪽 참조.

- 11) 당시 중국소설의 국내유입이 대단히 활발했던 것으로 본다면 1890년에 바로 직수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忠烈小五義』가 1890년 후반에 간행되었다면 그 해에 바로 조선에 유입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 12) 김정녀·박재연 교수, 『충렬소오의』, 이회문화사, 2005. 머리말, 1-10쪽, 金明信·민관동,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번역양상 및 표기 특징」, 『中國小說論叢』 제32집, 2010. 9. 259-278쪽 참조.
- 13) 『충렬소오의』가 한글 고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이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본다. 원전 작품의 번역은 번역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선 독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번역되고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冊僮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책체는 서적을 중개하고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출판업자나 번역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민희, 전게서, 163쪽 참조.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	所藏番號
繡像全圖小五義	寫者未詳, 上海掃葉山房, 清光緒25年(1899)刊	12卷6冊(第1~12), 中國石印本, 20×13.3cm, 四周單邊, 半郭:17.3×12cm, 無界, 22行49字, 上下向黑魚尾, 紙質:綿紙	題簽:繡像小五義, 板心題:繡像小五義, 表題:繡像小五義, 序:光緒二十五年(1899)仲夏美縣朱蔚彬書, 刊記:己亥(1899)仲夏上海掃葉山房石印	江陵市船橋莊	
	著者未詳, 上海掃葉山房, 清光緒25年(1899)序	6卷6冊(卷1-6), 20.6×13.4cm, 四周單邊, 半郭:17.6×12.1cm, 無界, 25行48字, 上下向黑魚尾	版心題:小五義全傳, 序:光緒二十有五年歲次己亥(1899)子生居士書	東亞大學校	(3):12:2-93
小五義		6卷5冊120回(卷1缺), 石印本		鮮文大朴在淵	
繡像繪圖小五義傳	石玉崑(清)撰, 上海進步書局, 清光緒末~中華初刊	6卷4冊(第1回~第124回), 中國石印本, 20.1×13.5cm, 四周雙邊, 半郭:18.2×12cm, 27行60字, 上黑魚尾, 紙質:竹紙	刊記:上海進步書局印行	成均館大學校	(曹元錫) D7C-150
	著者未詳, 上海大成書局, 刊寫年未詳	6卷6冊(卷1-6), 20.1×13.4cm, 有圖, 半郭:17.7×12.4cm, 無界, 20行45字, 上下向黑魚尾	表題:小五義全傳, 印記:上海大成書局印行	東亞大學校	(3):12-13
增像小五義傳	石玉崑(清)述, 清光緒16年(1890)	25卷6冊(卷1-25), 中國石印本, 有圖, 19.2×13cm, 半郭:15.5×12cm, 有界, 17行32字, 花口, 上下內黑魚尾	增像小五義序:…光緒庚寅(1890)仲夏文光樓主人謹識, 序:光緒庚寅(1890)仲夏知非子書於都門文光樓, 序:光緒十六年歲次庚寅(1890)中呂月慶森寶書氏誌於臥遊軒, 小五義辨:…光緒十六年歲次庚寅(1890)風迷道人又識, 繡像6葉12幅	淑明女子大學校	
	著者未詳, 年紀未詳	16冊(零本, 第1~2卷(1冊)缺), 한글筆寫本, 28.4×19.6cm		奎章閣	[奎]7553
충렬소오의 (忠烈小五義)	著者未詳, 寫年未詳	本編30卷(附編1卷, 合31冊), 한글筆寫本, 28.2×18.6cm, 無郭, 無絲欄, 無版心, 10行字數不定, 紙質:楮紙	印:藏書閣印, 35mmR[Nega], 1703f	韓國學中央研究院	4-6848/R35N-000072-74

3. 『忠烈俠義傳』과 『忠烈小五義』의 敍事構造

이들 작품의 서사구조는 각각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선 전편 『忠烈俠義傳』 120회의 서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 1) 北宋 때 李妃와 劉妃가 모두 임신 중이었는데 유비는 총관 郭槐와 짜고 삼팽이를 이비의 아들과 바꿔치기한다.
- 2) 寇珠와 陳林이 목숨을 걸고 태자를 구해내어 八賢王에게 건네주었다가 발각되어 구주는 죽고 이비는 陳州로 도망간다.
- 3) 江南 包員外가 50세에 셋째 아들 包公을 얻게 된다.
- 4) 包公은 둘째형 包海 부부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지만 요정의 도움으로 모면한다.
- 5) 包公이 定遠縣 知縣으로 부임하여 사건을 잘 처리하자 황제는 그에게 龍圖閣 大學士로 봉한다.
- 6) 包公은 公孫策과 展昭 등의 도움으로 龐太師가 보낸 자객을 사로잡고 安樂侯 龐煜을 작두형에 처한다.
- 7) 包公은 李妃를 만나 郭槐를 문초하여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고 李妃를 궁으로 돌려 보낸다.
- 8) 황제는 展昭에게 ‘御猫’라는 작호를 하사하고 包公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사건들을 해결한다.
- 9) 휴가를 가던 展昭는 丁兆蘭과 丁兆惠 형제를 알게 되고 茉花村의 丁府와 정혼한다.
- 10) 陷空島의 五鼠 중의 하나 白玉堂은 展昭가 ‘御猫’라는 호칭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東京에 가서 난동을 부리며 중간에 수재 顏查散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다.
- 11) 白玉堂은 通天窟에 展昭를 가두고 분풀이를 하려 하지만 丁兆惠와 三鼠가 힘을 합쳐 백옥당을 사로잡고 황제가 그에게 직함을 준다.
- 12) 蔣平은 歐陽春, 丁兆蘭과 음적 花沖을 생포한다.
- 13) 歐陽春은 태수 倪繼祖를 구해내고 智化를 알게 된다.

- 14) 沈中元은 艾虎와 내통하여 馬強을 생포한다.
- 15) 白玉堂은 몰래 九龍冠을 馬朝賢의 저택에 갖다놓아 그들이 모반하려 한다고 알려 악인들은 처형되고 倪太守는 복직된다.
- 16) 顏查散은 蔣平의 도움으로 물귀신을 평정하고 洪澤湖를 잘 다스린다.
- 17) 金輝는 襄陽太守로 부임하고 顏查散은 襄陽을 순시하여 襄陽王을 감시하게 된다.
- 18) 金輝는 습격당하지만 군웅들이 그를 구해내고 악인 藍驍를 생포한다.
- 19) 襄陽王은 鄧車를 시켜 顏查散의 印信을 훔쳐 내게 한다.
- 20) 白玉堂은 印信을 찾으러 갔다가 襄陽王의 銅網陣에 들어가 죽는다.
- 21) 蔣平은 洞庭湖에서 인신을 건져내어 顏查散에게 돌려준다.
- 22) 蔣平은 丁兆惠와 함께 徐慶을 구해내고 백옥당의 유골도 찾아온다.
- 23) 智化와 歐陽春은 鐘雄에게 거짓으로 항복하여 그의 신임을 얻는다.
- 24) 鐘雄의 생일에 그를 설득하여 귀순시키고 협객들과 함께 襄陽으로 쳐들어간다.

이상과 같이 『忠烈俠義傳』의 전반부는 包公의 출생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야 협의인물들의 활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속편 『忠烈小五義』 124회의 서사는 이상에서 언급된 『忠烈俠義傳』과 비교해보면 밑줄 친 부분에서 공통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1) 襄陽王 趙珏은 銅網陣을 설치하고 君山¹⁵⁾ 채주 鐘雄 등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한다.
- 2) 按院 顏查散이 관인을 도둑맞는다.
- 3) 호위 白玉堂은 관인을 찾다가 銅網陣에 들어가 죽는다.
- 4) 展昭를 逆水潭에서 버려진 관인을 건져낸다.
- 5) 襄陽王은 沈中元和 鄧車를 파견하여 顏查散을 암살하려 한다.

14) 金明信, 「낙선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1-22쪽 참조.

15) 일부 판본은 君山이 軍山이라 인쇄되어 있다.

- 6) 沈中元은 韓彰과 徐慶에게 鄧車를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 준다.
- 7) 徐慶은 展昭와 함께 백옥당을 찾으러 갔다가 함정에 빠진다.
- 8) 蔣平은 徐慶을 구출하고 백옥당의 시체를 찾는다.
- 9) 智化는 北俠 歐陽春과 거짓 투항하여 君山을 수복시킨다.
- 10) 蔣平은 雷英의 비밀기관을 찾아내고 彭啓에게 銅網陣의 지도를 얻는다.
- 11) 沈中元이 顏查散을 납치한다.
- 12) 蔣平은 貫頂詩¹⁶⁾를 해독하여 沈中元의 짓임을 알아낸다.
- 13) 艾虎는 岳州에서 馬龍과 張豹를 사귀고 사촌형 胡小記와 徐良을 만난다.
- 14) 盧珍은 丁兆蘭과 함께 襄陽으로 가다가 호랑이를 잡는 韓天錦을 만나고 盧珍과 展昭의 질녀는 결혼한다.
- 15) 黃花鎮에서 徐良, 艾虎, 白玉堂의 조카 白芸生, 盧珍, 韓天錦은 의형제를 맺어 ‘小五義’가 된다.
- 16) 徐良과 艾虎는 九天廟에서 石門縣의 知縣 鄧九如 일행을 구출한다.
- 17) 徐良은 雲霞廟의 道長이 준 차를 마시고 중독된 艾虎, 胡小記, 喬賓을 구출한다.
- 18) 徐良은 비구니에게 잡힌 白芸生을 谷雲飛의 도움을 구출한다.
- 19) 展昭, 歐陽春, 丁兆蕙는 鄧飛熊을 물리치고 魏眞을 만나 산채로 이동한다.
- 20) 산채에서 盧方, 徐慶, 智化 등이 모여 君山の 鐘雄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한다.
- 21) 韓良은 艾虎와 徐良을 만나 艾虎더러 施俊을 호송하게 한다.
- 22) 蔣平은 魯士杰을 제자로 거둬들이고 襄陽王과 내통하던 范天保를 제거한다.
- 23) 蔣平은 대채주 鳴源을 물리치고 黑水湖를 격파한다.
- 24) 黑水湖에 모인 군웅들은 顏大人을 진송하고 沈中元은 顏大人에게 용서를 받는다.
- 25) 王官과 雷英이 장작에 점화하여 혐의인물들을 간히게 만든다.

16) 한 구절의 마지막 두 글자와 다음 구절의 첫 두 글자가 같은 시.

26) 蔣平은 양양왕의 계책에 속아서 함정에 빠지고 智化가 맹약서를 찾는 순간에 칼이 허리 위로 떨어진다.

이상으로 볼 때 『忠烈小五義』는 전편 『忠烈俠義傳』의 마지막 부분과 조금씩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내용의 구성을 조금씩 달리하여 새롭게 만들고자 했고 아울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음 편을 기다리도록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서사구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스토리 구성상의 특징

『忠烈小五義』는 전편 『忠烈俠義傳』의 후반부와 스토리가 약간 중복되어 있다. 이 점은 기존 작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단점도 있다. 전편 『忠烈俠義傳』은 包公의 신비로운 출생과 재판 과정을 통해 그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俠義人物들의 충절과 협행을 묘사하고 있다.¹⁷⁾ 이와는 달리 『忠烈小五義』는 포공의 후계자이자 清官 顏查散에 대해서 영웅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사산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편과 차별화하여 협의인물들이 襄陽王과 대결하는 구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작품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연계성, 스토리의 연속성, 열린 결말의 추구, 구어적 표현의 활용, 보편적인 공감대의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7) 包公은 ‘清官’의 표상이지만 새까만 얼굴을 가진 독특한 외모에다 출생도 특이했기에 영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비록 작품 중에서는 충절의 관점에서 주로 묘사되고 있지만 다른 협의인물들과의 배분에 있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전편 『忠烈俠義傳』에서는 포공이 재판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더불어 협의인물들의 활약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金明信, 「낙선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3-5쪽 참조.

1) 등장인물의 연계성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전편 『忠烈俠義傳』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총렬소오의』에서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智化는 여전히 작전 참모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고 蔣爺나 徐慶 등도 俠義人物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鍾雄은 전편에서 혐의인물들에게 귀순했으나 이 작품의 초반에는 아직 악인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다.¹⁸⁾ 종옹은 악인들 중에서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飛叉太保 鍾雄은 文科에 進士로 급제했었고 武科에 探花로 급제했던 文과 武를 모두 갖춘 인재입니다. 文은 말할 것도 없고 武書에 대해 논하자면 『孫武』十三篇을 읽었고 武侯의 병법서를 널리 보았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 대해 논하기를 좋아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에 적당하며 천리 밖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는 귀신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기지를 가지고 있고 세상과 백성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成湯의 伊尹이나 渭水の 姜子牙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귀로 듣고 아주 충분히 봤습니다.(那飛叉太保鍾雄, 文中過進士, 武中過探花, 文武全才. 文的不必說, 論武書, 讀『孫武』十三篇, 廣覽武侯兵書, 善講攻殺戰守, 稱的起運籌帷幄之中, 決勝千裏之外. 鬼神莫測之機, 濟世安民之策, 強不能比成湯的伊尹、渭水的子牙, 我耳聞著很夠看的. 『忠烈小五義傳』¹⁹⁾ 제21회)

이처럼 智化는 비록 악인들 중의 하나인 鍾雄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결코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날카롭고 이성적인 그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화는 종옹이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혐의인물들이 종옹을

18) 鍾雄은 초기에는 악인 그룹에서 활동하지만 후반에는 俠義人物 그룹에 귀순하여 활약하는 인물이다.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있는 비교적 특이한 경우이다. 김명신,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231-249쪽 참조.

19) 이하 원문의 인용문은 光緒 16년(1890) 東郡寶興堂 간행본을 저본으로 교정한 佚名, 『忠烈小五義』(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를 근거로 했음을 밝힌다.

상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하겠다.

『충렬소오의』가 중국과 朝鮮 독자층의 향유를 받게 된 데에는 전편에 등장했던 기존인물의 연계에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의 창조에도 그 묘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徐良은 전편 『충렬협의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서량이라는 인물을 창조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재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徐慶의 아들로 설정된 徐良의 인품과 성격은 다음 문장에서 알아볼 수 있다.

徐良이 말했다. “내가 가게에서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기어이 나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물러날 생각을 하라고 권유했는데 기어이 오기를 부렸더구나. 나는 너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래는 간수에게 묻는 수완을 가졌어야 했다. 너희들은 가게 밖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부 다 들었다. 네가 먼저 나왔고 나는 뒤에서 바로 따라 나왔다.…그래도 내가 먼저 무너진 사당에 도착했다. 네가 안으로 적의 집에 들어갈 때 나는 뒤쪽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사당 안에서 사람을 묶을 때 나는 창 밖에서 네가 張二哥를 구하러 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안타깝게도 너는 또 길을 나섰을 때 장사꾼 분장을 했지만 너는 자물쇠조차도 쳐다보지 않았다. 만약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형제야, 내가 아직 살아있었을 것 같으나? 네가 이번에 간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고 네가 그들을 구해왔다고 알고 있다.…내 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형들 두 명도 구해내지 못했고 너도 죽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처리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며 담대해야 하고 세심해야 하며 정직해야 하고 용의주도해야 한다.” 서량이 艾虎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자 얼굴이 매우 빨갱게 변하면서 말했다. “형, 저는 형보다 한참이나 모자라요.(徐良說: “我在店中同你說什麼來著? 你執意不肯告訴我實話. 我勸你, 未思進, 先思退, 你偏是一沖的性兒. 我打算你有多大本事, 原來就是求獄神爺的能耐. 你們在店外說話, 我就全部聽明白了. 你前腳出來, 我後腳就跟出來了.…還是我先到破廟. 你打前頭進賊家裏去, 我在後窗戶那裏瞧著. 你到廟裏頭捆人, 我在牆外頭等著你救張二哥去.…可惜你還踩了一回道, 扮作個買賣樣兒, 你連鎖頭都沒瞧見. 要不是我跟來, 老兄弟你這條命還在不在?)

你這一走，人所共知，都知道你救他們來了。…要沒有我這口刀也是不行。我要不來，兩個哥哥也救不出去，你也死了。從此往後，行事總要思尋思尋，膽要大，心要小，行要方，智要圓。”數說的艾虎臉似大紅布一般，言道：“哥哥，小弟比你大差天淵相微。” 제71회)

馬龍과 張豹를 구하러 갈 때에 艾虎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만했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럼에도 몰래 뒤따라갔던 徐良이 세심하게 처리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 서량의 역할은 죽은 白玉堂과는 달리 주도면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작품에서 또 다른 흥미를 자아내는 인물이다. 智化는 피주머니처럼 계획에 세우는 데는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특별한 무예를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서량은 지혜와 무예를 모두 갖추고 있는 완전 무결함을 지향하고 있다.

2) 스토리의 연속성

襄陽에 새로 임명된 巡按 顏查散이 관인을 도둑맞자 錦毛鼠 白玉堂은 호기롭게 襄陽王의 저택으로 쳐들어간다. 그렇지만 백옥당은 복잡다단한 銅網陣에 걸려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만다.²⁰⁾ 그 사실을 알게 된 歐陽春, 智化, 盧方, 韓章, 徐慶, 蔣平 등은 온갖 지혜를 짜내어 君山の 寨主 鍾雄을 붙잡아 귀순하게 한다. 아울러 혐의인물들은 반역도의 수괴 襄陽王과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한다. 다음은 『忠烈俠義傳』 마지막 회의 내용이다.

영웅들이 모두 君山에 이르렀다. 鍾雄은 姜氏를 보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즉시 귀중품을 정리하고 배를 타고 陳起望에 도착하여 몰래 떠났다. 여기에서 영웅들은 이를 동안 모였다가

20) 白玉堂의 죽음은 나머지 혐의인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가 陷空島의 陣型을 설계한 사람으로 이처럼 銅網陣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옥당의 죽음으로 인해 혐의인물들이 襄陽王에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원인 중의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웅과 작별했고 바로 襄陽으로 출발했다.(所有眾英雄俱到君山. 鍾雄見了姜氏, 悲喜交集, 說明了緣故. 即刻收拾細軟, 乘船到陳起望, 暗暗起身. 這裏眾英雄歡聚了兩日, 告別了鍾太保. 也就赴襄陽去了. 『忠烈俠義傳』 제120회)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이미 전편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고사들이지만 『忠烈小五義』에서는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여 독자들이 전편의 안타까웠던 장면을 다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충렬소오의』는 전편 『忠烈俠義傳』의 스토리 가운데서 마지막의 일부분을 재구성하여 독자들이 전편의 스토리를 연상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충렬협의전』의 마지막 부분은 白玉堂의 장렬한 죽음과 관련된 고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白玉堂은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보고…생각했다. ‘알고 보니 맹약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발 밑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걸음을 옮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큰 칼을 떨어뜨렸는데 쿵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널판이 한 번 뒤집어졌다. 백옥당이 말했다. “좋지 않구나!”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즉시 머리 위로부터 발 아래까지 날카로운 칼이 아닌 데가 없어 온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한 동안 징 소리가 어지럽게 나더니 사람들이 떠들썩하더니 말했다. “銅網陣에 사람이 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활을 쏘아라!” 귀속으로 소나기가 내리듯이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동망진 위에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되어 이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이 또 분부했다. “화살을 멈춰라.” 궁수가 내려갔고 사수가 올라왔다. 햇불을 가지고 와서 보니 동망진 안에는 피가 흥건해서 있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지조차도 각각 나누어지지 않게 되었다.(白玉堂舉目留神,...暗道: “原來盟書在此.” 這句話尚未出口, 覺得腳下一動. 才待轉步, 不由將策刀一扔, 只聽‘咕嚕’一聲, 滾板一翻. 白爺說聲: “不好!” 身體往下一沉, 覺得痛徹心髓. 登時從頭上到腳下無處不是利刃, 周身已無完膚. 只見一陣鑼聲亂響, 人聲嘈雜, 道: “銅網陣有了人了.” 其中有一人高聲道: “放箭!” 耳內如聞飛蝗驟雨, 銅網之上猶如刺蝟一般, 早已動不了的了. 這人又吩咐: “住箭!” 弓箭手下去, 長槍手上來. 打來火把照看, 見銅網之內血漬淋漓, 慢說

面目, 連四肢俱各不分了. 제105회)

이처럼 白玉堂의 죽음을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필치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속편 『忠烈小五義』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白玉堂의 심리 상태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충렬소오의』 제6회에서 백옥당의 죽음을 묘사한 부분이다.

白玉堂은 銅網陣 속에서 어지럽게 쇠뇌살이 몸에 가득 박혔고 좌충우돌해도 그물 밖을 나가기 어려웠다. 빠드득 이를 갈았지만 온몸은 화살받이가 되었는데도 한스러워 두 눈을 부릅떴다. 칼을 가로로 들었더니 화살의 독이 심장을 공격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등 뒤에는 동망진의 고리가 걸렸다. 순식간에 만사가 혼미해지고 황제, 包公, 친구, 결의형제 등등도 독화살에 막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이 쏘아져 고슴도치처럼 되었다. … 神手大聖 鄧車가 궁노수의 쇠뇌를 받고 동망진의 후추만한 구멍을 향해 한 번 쇠뇌를 잡아당기니 쇠뇌살이 두 개가 구멍을 향해 들어가 마침 백옥당의 얼굴을 맞혔다. 백옥당은 눈앞이 깜깜해짐을 느끼며 아득하니 혼백이 저 세상으로 갔다.(五爺在銅網之內, 被亂弩攢身, 橫沖豎撞, 難以出網. 磕哧哧, 咬碎鋼牙, 渾身是箭, 恨不得把雙睛瞪破. 橫著刀, 弩箭毒氣, 心中一攻, 就覺著迷迷離離的咧, 後脊背早被銅網鉤掛住. 霎時間, 萬事攻心, 甚麼萬歲、包公、朋友、拜兄弟, 也就顧不得遮擋毒箭了. 霎時間射成大刺蝟相仿. … 神手大聖鄧車將弓弩手的弓弩接在手中, 對著銅網胡椒眼的窟窿, 一搬弩弓, 一雙弩箭, 對著窟窿, 射將進去, 正中五老爺的面門. 五爺就覺著眼前一黑, 渺渺茫茫, 神歸那世去了. 제6회)

이 부분은 전편 『충렬협의전』의 서술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백옥당이 죽기 전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편을 읽은 독자들은 대부분 백옥당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내용을 통해 또 다시 공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3) 열린 결말의 추구

清代는 중국 長篇小說의 흥성기였기 때문에 俠義公案小說과 같은 작품들도 많이 유행하고 출판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당시 독자들의 독서 취향과 권력자들의 의도가 부합되어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忠烈小五義』는 『忠烈俠義傳』의 속편으로 등장했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었던 작품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大團圓이라는 결말을 선호하는 편이다. 중국 고전소설도 대개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일부 작품들은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을 추구할 때도 있다.²¹⁾ 『忠烈小五義』의 결말이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충렬소오의』는 중국 내에서도 유행했던 작품이었지만 朝鮮에도 유입되어 그 작품이 번역되어 조선의 독자들에게 향유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충렬소오의』의 매력은 이상에서 언급한 스토리의 연속성, 등장인물의 연계성과 더불어 열린 결말의 추구에도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로운 속편의 창작을 의식하여 결말을 완결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편을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智化는 백보 가죽 주머니를 풀더니 沈中元에게 또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심중원이 말했다. “나에게 물어볼 필요 없소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겠군요. 매복이 있을까 두려우면 내가 올라가겠소.” 지화가 말했다. “역시 내가 올라가는 게 낫겠소. 당신이 나를 위해 망을 봐주시오.” 심중원에게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여전히 지화가 올라갔다. 조심스럽게 횡불을 들어 비춰보고 불상 제좌에 뛰어올라 칼을 들고 목판을 자르고 위쪽의 노란 구름 무늬 비단으로 된 불상의 휘장을 칼로 급하게 자르니 맹약서의 상자가 보였다. 양쪽에 두 개의 구리 고리가 있어서 손으로 꼭 잡았더니 짹 하는 소리가 났고 위에서 초승달 모양의 칼이 떨어지더니 마침 지화의 허리 위에 떨어졌다. 탕 하는 소리가 났다. 智化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智爺把百寶皮

21) 열린 결말은 작자가 작품의 전체 내용을 완전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독자가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결말은 다시 읽기라는 작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김현실 외 지음,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51쪽 참조.

囊解下來, 問沈爺還有消息沒有. 沈爺說: “你不必問我, 我直不敢說了. 要怕有埋伏, 我上去罷.” 智爺說: “還是我上去罷. 你給我巡風.” 教沈中元在外邊巡風. 仍是智爺上去. 細拿千里火一照, 躡上佛櫃, 拿刀緊剎樓板, 把上頭的黃雲緞佛帳用刀削將下來, 就看見了盟單匣子… 兩邊有兩個銅環, 用手一揪, 哧的一聲, 從上面掉下一把月牙的刀來, 正在智爺的腰上, 啣的一聲. 智爺把雙睛一閉…… 제124회)

이처럼 독자들에게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다.

지화의 생사와 銅網陣을 깨뜨리는 각각의 내용은 100여 회 이후 속편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선 중요한 대목을 잠깐 뒤에 기록하겠습니다. 만약 영웅들이 화를 면했는지 물어보면 襄陽王이 寧夏國으로 도망치고 지화가 맹약서를 도둑질했지만 공로를 양보하기 위해 몰래 달아납니다. …도적들이 陷空島를 탈취하고 盧方이 지쳐 죽게 되며 죽도록 울다가 徐慶이 다시 함공도를 탈취합니다. 朝天嶺을 다섯 번 쳐부수고 天峰山을 세 번 공격합니다. 潼關을 잃고 鍾雄은 장수가 되어 오랫동안 寧夏國을 공격하고 襄陽王을 체포한 얘기는 모두 속편 『小五義』에서 해설합니다.(智爺生死破銅網陣一切各節目, 仍有一百餘回, 隨後刊刻續套嗣出. 先將大節目暫爲開載於後. 若問眾英雄脫難, 襄陽王逃跑寧夏國, 智化盜盟單, 因爲讓功, 暗走黑妖狐, …群賊奪陷空島, 累死盧方, 哭死徐慶. 複奪陷空島. 五打朝天嶺. 三搶天峰山. 失潼關, 鍾雄掛帥, 久搶寧夏國, 拿獲襄陽王. 俱在續套『小五義』分解. 제124회)

이 작품의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음에 속편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작품 중에서 완전한 결말을 맺지 않았고 새로운 속편이 출현할 것을 알려 줌으로써 열린 결말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구어적 표현의 활용

전편 『충렬협의전』은 話本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석옥근에 의해서 講

창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전반에는 구어적 표현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구두 문학의 계승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²²⁾ 현대 소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書面語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지만 당시 문언작품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口語와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협의인물들간의 대화는 매우 솔직하고 직선적인 어투를 사용한다. 다음은 제2회 智化가 밤에 양양왕의 銅網陣에 찾아갔다가 白玉堂과 마주치며 하는 대화이다.

갑자기 앞에서 주먹을 치는 소리가 두 번 나자 白玉堂은 둘째 형 韓彰이 여기에 온 줄 알고 오히려 크게 놀랐다. “둘째 형, 오신다는 소식을 몰랐군요.” 백옥당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원래부터 智化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지화가 백옥당을 붙잡으며 말했다. “너, 간이 크구나!” 백옥당이 크게 화를 냈다. “智兄! 어째서 제가 간이 크다는 거요? 설마 형이 나보다 간이 크다는 겁니까?” 지화는 백옥당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만방자하고 자만심이 강하며 자기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남이 자기보다 뛰어난 줄 알지 못하며 세상의 才人을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지화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섯째는 화내지 말게. 내가 간이 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王府의 사람이 누설한 게 있어서 감히 온 거라네. 다섯째는 누가 이 銅網陣에 대해 말한 걸 들었는가?” 백옥당이 크게 웃었다. “아주 사소한 八卦에 대해 어디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陷空島의 7개의 굴과 4개의 섬, 3개의 봉우리와 6개의 산줄기, 3개의 동굴과 25개의 구멍들은 곳곳마다 모두 西洋八寶²³⁾라고 하는 나사못과 회전식 활로 만들어진 방법인데 전부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하찮은 連環堡는 노리개와 마찬가지로요.” 지화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忽然聽前邊擊掌兩下, 知是二哥在此, 倒覺吃驚. “二哥不懂的消息.” 身臨切近, 原是智兄在此. 見禮, 智爺攙住. 智爺言道: “你好大膽量!” 五爺勃然大怒: “智兄! 怎麼說小弟好大膽量? 你莫非比

22) 程毅中, 「從『三俠五義』·『小五義』看清代的話本小說」,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6. 6. 162쪽 참조.

23) 여덟 종류의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

小弟膽量還大不成?” 智爺深知五爺的性情，好高騫遠，妄自尊大，只知有己，不知有人，藐視天下的能人。智爺滿臉陪笑說：“五弟莫怒，劣兄非是膽大到此，因有王府人泄機，方敢前來。五弟聽何人所說此陣?” 五爺大笑：“小小的八卦，何足道哉! 不是小弟說句大話，我們陷空島七窟四島，三峰六嶺，三窟二十五孔，各處全都是西洋八寶螺絲轉弦的法子，全是小弟所造。這個小小的連環堡，玩藝一般。” 智爺吃驚不小。(제2회)

이상에서 보여주듯이 智化는 심지가 깊은 사람이지만 직설적인 어휘를 구사하고 있고 다혈질인 白玉堂은 에둘러 말하지 않는 성격이므로 지화에게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버리고 있다.

다음은 徐慶이 도적 병사들을 단숨에 무찌르는 부분으로 작품의 구어적인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徐慶이 한바탕 바람을 일으켰더니 찰카닥찰카닥 하는 소리가 났다. 또 딸랑딸랑 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한참동안 났다. 무슨 까닭일까요? 찰카닥찰카닥 하는 소리는 서경이 병기로 베는 소리이고 딸랑딸랑 하는 소리는 병사들이 병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병사들이 사망으로 흩어졌고 서경도 더 쫓지 않았으며 칼을 들어서 北俠에게 건네주었다. 자신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晨起望 길로 돌아갔다.(徐三爺一陣撒風，就聽見叱噤咩噤一陣亂響，丁丁當當又是一陣亂響。甚么緣故? 叱噤咩噤，是把人家兵刃削折了的聲音; 丁丁當當是那半截折兵器墜落在地上的聲音。嘍兵四散，三爺也並不追趕，拿著刀，交與北俠，自己帶起大眾同回晨起望路上了。(제21회)

밑줄 친 부분은 評話體의 특성을 살려서 說話人이 개입한 부분이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설화인은 흥미진진한 부분에 추임새를 넣어 독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키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작품 중에서는 통속적인 속어 등을 활용하여 구어적인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智化와 艾虎가 대화하는 장면이다.

智化가 艾虎에게 말했다. “다섯째 숙부를 보거라. 얼마나 위엄이 있는

지. 지금은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니다만 복은 용모를 따라 바뀐단다.” 애호가 말했다. “사부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셨잖아요. ‘장수와 재상은 본래 씨가 있는 게 아니니 남자는 마땅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화가 몰래 기뻐했다. “이 녀석은 이후에 반드시 대성할 거다.” 그리고 바라보니 가마와 수레 등이 모두 上院衙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문무 관원이 몰려들더니 상원아로 들어가서 명함을 건네주었다.(智爺與艾虎言道: “看你五叔, 多大威嚴, 今非昔比, 福隨貌轉.” 艾虎道: “師傅你教的我的, 不是常說, ‘將相本無種, 男兒當自強’?” 智爺暗喜: “此子日後必成大器.” 觀看轎馬車輛等俱都入上院衙. 頃刻間, 文武官員壅壅塞塞, 入上院衙, 投遞手本. 제1회)

이처럼 艾虎는 智化의 제자로 사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전의 지화가 자주 쓰던 속어를 예로 들어 대답하고 있다.

요컨대 俗語와 같은 구어체의 사용은 독자들이 작품을 감상할 적에 속도감을 낼 수 있고 친근함을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작품 중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활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보편적 공감대의 형성

통속적인 서사물은 일단 어떤 주제가 한번 성공을 거두기만 하면 아무리 진부하고 경직된 것일지라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²⁴⁾ 예를 들면 『兒女英雄傳』은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대표작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해피 엔딩’이라는 결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주인공 安驥의 행적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續兒女英雄傳』²⁵⁾, 『再續兒女英雄傳』 등의 속편이 다시 출판되어 사람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²⁶⁾ 물론 속편은 전편에 비하여 편폭도 상당히

24) 아들드 하우저,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88. 258-262쪽 참조.

25) 전편에서 유약한 서생의 이미지로 등장했던 安驥는 속편에서는 능률한 장수이자 유능한 관리이며 재판관으로 활약한다. 이 점은 여주인공 何玉鳳이 전편과 비슷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다. 金明信, 『續兒女英雄傳』의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30집, 2009. 9. 299-316쪽 참조.

짧고 문학성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속편의 출현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국 이 작품이 人口에 膾炙되었던 작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독서 향유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었음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전편 『충렬협의전』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俠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항상 俠義라는 개념을 척도로 삼아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夾峰山의 도사 魏眞이 歐陽春에게 俠義를 실천하는 徐良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다.

北俠 歐陽春이 물었다. “어떤 사람인가?” 道士 魏眞이 대답했다. “바로 陷空島 穿山鼠 徐 셋째 나리의 공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는 철물 가게 문 밖에 삽니다. 이 사람은 용모가 특이한데 얼굴이 검고 붉으며 두 눈썹털이 희지요. 그의 이름까지도 제가 지어 주어 徐良이라 하고 字는 世長²⁷⁾이라 했습니다. 제 생각에 漢 나라 馬氏 오형제 중에 백미가 가장 뛰어났었지요. 그런 까닭에 그에게 良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武藝는 감히 대단하다 말할 수 없지만, 十八般 무기와 필멸 날아다니는 夜行術과 暗器에 있어서 그는 또 천성적으로 영리하게 행동했고 또 이어서 暗器術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山西 지역에서는 대단히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山西雁이라 별명을 지어줬고 多臂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돈을 물처럼 썼고 의리에 의거하여 재물을 가법게 여겨서 오히려 俠義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첩 등 세 사람이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徐 셋째가 평생 동안 천진난만하고 열성적이며 충후하더니 이렇게 충명하고 능력 있는 아들을 두었구나.”(北俠問: “什麼人?” 回說: “就是陷空島穿山鼠徐三老爺的公子。我見著他在鐵鋪門外, 此人生的古怪, 黑紫臉膛, 兩道白眉毛。連名字都是貧道與他起的, 叫徐良, 字是世長。我想當初馬氏五常, 白眉的最良, 故此與他起的名字良字。如今武

26) 속편에 대한 열망은 대중의 공통적인 심리라고도 할 수 있다. 대중들은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속편의 작품성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그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환상을 대리 충족하고자 한다. 김현식, 『대중문화심리 읽기』, 울력, 2007. 99쪽 참조.

27) 世長은 일부 판본에서 ‘世常’이라 되어 있다.

藝不敢說行了, 十八般兵刃與高來高去夜行術的工夫與暗器, 又對著他天然生就的伶俐, 又跟著學了些暗器, 現今在山西地面很有些個名聲, 人送了一個外號叫山西雁. 又叫多臂雄. 自己生來揮金似土, 仗義疏財, 到有些個俠義肝膽.” 北俠等三位聽了大喜說: “徐三爺一生天真爛漫, 血心熱膽, 忠厚了一輩子, 積了這麼一個精明強幹的後人.” 제94회)

이처럼 혐의인물들은 “의리에 의거하여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俠義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俠義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대개 일반 사람들은 선인들이 좋은 보답을 받고 악인들이 응징되기를 바란다. 그러하기에 작품 중에서 악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간 지독해보여도 그로 인해 안심하며 당연한 응보라고 긍정한다. 혐의인물 白玉堂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독자들은 백옥당에게 害惡을 끼쳤던 악인 徐敞의 죽음에 대해서는 쾌감을 가지게 된다.

小瘟疔皇 徐敞는 득의양양해서 분부했다. “화살을 빼라.” 피와 살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화살을 다 뽑고 나서 서폐가 얼굴을 들고 보니 뜻밖에 어떤 사람이 도르래를 한 번 끌어당겨서 銅網陣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그 큰 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비뚤어지거나 빗겨가지도 않고 바로 서폐의 머리 위를 베어 그의 머리를 두 조각으로 만들었다. 입 하나가 두 개로 되어 내려갔는데 한편에서는 ‘아’라는 소리가 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라는 소리가 나며 몸이 뒤쪽으로 한번 엎어지더니 오통통재라 죽어버렸구나.(小瘟疔皇徐敞滿心得意, 吩咐: “拔箭.” 血肉狼藉, 難以注目. 將箭拔完之後, 徐敞仰面觀視, 不防有人把滑車一拉, 銅網往上一擡, 那把笨刀就落將下來, 不歪不斜, 正砍在徐敞的頭上, 把個腦袋平分兩半, 一張嘴往兩下裏一咧, 一邊是‘哎’, 一邊是‘呀’, 身體往後一倒, 也就‘嗚呼哀哉’了. 제105회)

襄陽王의 부하 徐敞는 혐의인물 白玉堂을 살해하는 공을 세웠지만 자신도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독자들은 당연하다는 반

응을 보이고 ‘因果應報’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5. 나오는 말

『忠烈小伍義』는 清代에 창작되었고 당시 상당히 유행했던 俠義公案小說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작자는 石玉昆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유행하여 출판한 판본은 석옥곤의 원작에 가필하여 수정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라 주장되고 있다. 이 수정자는 說書藝人일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忠烈小五義』는 『忠烈俠義傳』의 속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스토리도 『忠烈俠義傳』의 내용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다. 다만 『忠烈小伍義』의 앞부분은 白玉堂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재정리되어 묘사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忠烈小五義』는 朝鮮後期에 국내에 유입되어 한글로 번역되어 국내 독자들에게 향유를 받았던 작품이다. 이 작품이 언제, 누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작품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인해 朝鮮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스토리 구성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편 『忠烈俠義傳』의 등장인물이 연계적으로 출현하여 이 작품에 대한 익숙함을 표현해내고 있다.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독서 대상을 정하기도 한다. 익숙한 등장인물은 독서에 있어서 빠른 속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스토리가 연속적이다. 『忠烈小五義』는 전편 『忠烈俠義傳』의 스토리를 이어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셋째, 열린 결말을 추구했다.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결말을 완결하지 않고 있으면서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배가시키고자 했다. 넷째, 구어적인 표현을 잘 활용했다. 『忠烈小五義』는 기본적으로 話本小說을 계승한 작품으로 說書人이 講唱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구

어를 잘 사용했다. 俗語와 歇後語 등 다양한 구어적 표현이 작품 중에 녹아 들어 있다. 다섯째,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는 俠義, 因果應報 등을 작품 중에 잘 표현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정녀·박재연, 『忠烈小五義』, 이회문화사, 2005.
- 최혜실, 『한류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새문사, 2007.
- 아놀드 하우저 著, 최성만이영진 譯,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88.
- 강현두, 『대중문화론』, 나남, 1987.
- 김현식, 『대중문화심리 읽기』, 울력, 2007.
-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해안, 2007.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9.
- 김현실 외 지음,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金明信, 「낙산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 金明信,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 金明信, 「『續兒女英雄傳』의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30집, 2009. 9.
- 金明信·민관동,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번역양상 및 표기 특징」, 『中國小說論叢』 제32집, 2010. 9.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제9호, 1996.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流入과 受容에 대한 研究」, 『중국어문학』 제49호, 2007. 6.
- 佚名, 『忠烈小五義傳』,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 石玉昆, 『三俠五義』, 齊魯書社, 2008.

- 苗懷明, 「『三俠五義』與『小五義』『續小五義』關係辨」, 『信陽師範學院學報』, 1999. 7.
- 宋克夫, 「正續『小五義』作者考論」, 『文獻』, 1997. 8.
- 程毅中, 「從『三俠五義』·『小五義』看清代的話本小說」,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6. 6.
- 馬麗敏, 「『三俠五義』及其續書研究」, 黑龍江大學 碩士論文, 2005. 6.
- 譚正璧, 「論『小五義』」, 『明清小說』, 1981. 7.
- 李軍, 「『三俠五義』及續書藝術特色一二」, 『湖北師範學院學報』, 2002. 3.

❖ ABSTRACT

The study on *Zhong-lie-xiao-wu-yi*(『忠烈小五義』)'s
transmission and the story

Kim, Myung-sin · Min, Kwan-dong

Zhong-lie-xiao-wu-yi(忠烈小伍義), whose author was Shiyukun(石玉昆), is a Xia-Yi-Gong-An(俠義公案) novel in the late Qing Dynasty. This work published in 1890 when Emperor Guangxu(光緒) governed China. This work's author is Shiyukun, distribution books has an amender. The amender will be a shuoshuyiren(說書藝人). *Zhong-lie-xiao-wu-yi* is *Zhong-lie-xia-yi-zhuan*(忠烈俠義傳)'s a sequel, the story leads from *Zhong-lie-xia-yi-zhuan*. It is just the beginning of *Zhong-lie-xiao-wu-yi* is redundant. *Zhong-lie-xiao-wu-yi* was introduced to the late Chosun(朝鮮) Dynasty. This work was translated in Hangeul, Chosun's readers read *Zhong-lie-xiao-wu-yi*. This work's circulation is not clear, But this work's exciting story is interested in the readers. This work is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Zhong-lie-xia-yi-zhuan*'s characters appear equally, the readers feels familiar. The readers like the familiar characters, because the readers read the book. The familiar characters can have a sense of speed in reading. Second, the story is continuous. *Zhong-lie-xiao-wu-yi* is narrated by connecting *Zhong-lie-xia-yi-zhuan*'s story. Third, *Zhong-lie-xiao-wu-yi* was seeking an open ending. Classical novels prefer happy ending, this work is open ending, the expectations for the sequel became more doubled. The fourth, this work took advantage of the colloquial expressions. *Zhong-lie-xiao-wu-yi* is Huabenti(話本體) novel, took advantage of the spoken language. Suyu(俗語) and xiehouyu(歇後語) was represented in this work. Fifth, this work is formed a universal consensus. Ordinary people must empathize about xia-yi(俠義) and retribution, this work was well represented. Because the readers would have liked to this story.

Key Words

총렬소오의, 유입, 연계성, 열린 결말, 보편적 공감대

Zhong-lie-xiao-wu-yi, transmission, connection, open ending, universal consensus

논문접수일: 2012. 11. 09.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